



챔피언스 필드 개막전 '구름 관중' '호남 야구의 심장'이 된다. 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첫 정규리그 KIA-NC의 경기에 2만여 관중이 운집해 야구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다. (헬기조종 광주시 소방항공대 기장 박창순, 부기장 장화식) ▶관련기사 14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알림

2014 청소년 우리지역 명산 체험

첫번째 : 은혜학교·신광중학교 무등산 숲길체험

광주·전남은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무등산을 비롯한 보존하고 지켜야 할 명산이 곳곳에 위치한 천연자연 자원의 보고(寶庫)입니다. 광주일보사는 우리지역내 명산들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2014 청소년 우리지역 명산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첫 명산 체험으로 우리지역의 진산(鎭山)이자 '어머니 산'인 무등산을 소외계층인 장애인 청소년과 함께 체험합니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모두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함께 진행되는 숲 문화제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4월 10일(목)
- 무등산 숲길 체험 : 09:00~13:00 ■ 무등산 숲 문화제 : 13:00
- 장소 : 무등산 일원·충효동 왕버들 특실무대
- 주최 : 산림청·광주일보사·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광주학교
- 주관 : (사)광주학교

새정치연합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여론조사 50%+배심원단 50% 선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와 전남지사 후보는 '여론조사 50%+배심원단 투표 50%'로 선출된다. <관련기사 3면> 1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 심야까지 진행된 상임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100%', '당원 투표 50%+여론조사 50%', '여론조사 50%+배심원단 투표 50%' 등 3개의 공천 방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수의 예비 후보가 경쟁을 펼치는 지역에서는 여론조사와 배심원단을 조합하는 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출신 후보만 경쟁하는 지역의 경우 배심원단 투표 대신 당원 투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수 후보가 출마한 지역은 여론조사만으로 후보 공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4명의 예비후보군이 몰려있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는 '여론조사 50%+배심원단 투표 50%' 안이 적용된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가 배제되고 배심원단 투표를 도입한 것은 당내 조직기반이 미약한 구 새정치연합 출신 출마자들을 배려한 조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천 물음 둘러싸고 구 민주계와 구 새정치연합의 셈법이 다른데다 후보들의 이해관계도 맞서고 있어 배심원단 선결과 투표 방식 등 세부 규정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 유출 인구 96%는 10~30대 젊은층

10년간 30만6000명...84% 수도권·15%는 충청권으로 인구 감소·고령화 요인...교육 여건·일자리 등 대책 시급

호남권 청년인구의 외부유출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인구가 충청권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것도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것도 10~30대 젊은층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충청권에 새 동지들 틈 타기였다. 인구가 줄면 정부의 예산지원 감소에 따른 각종 지역사업의 축소는 물론 국회의석 수 감소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권의 힘마저 약화돼 호남의 낙후도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인구증대를 위한 상생 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묘책이 없어보인다. 세미나 주제 발표자인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일 미리 배포한 '호남권 인구감소에 따른 과제와 미래전략'이란 자료에 따르면 호남권 인구는 1970년 565만 명이었으나, 2012년 현재 508만명으로 57만 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는 3224만명에서 5000만명으로 늘었으며, 호남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4%에서 10.2%로 반 토막 났다. 반면 충청권은 440만명에서 522만명으로 82만명이 늘면서 전체 인구 비중도 10.4%로 호남을 앞섰다. 이 같은 호남인구의 감소는 도시화에 따

른 수도권 집중화가 가장 큰 이유지만, 충청권의 세력확장에 따른 '인구 빨리' 현상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은 최근 대학과 기업이 몰려들고, 행정수도인 세종시까지 건설되면서 호남의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최근 10년(2003~2012년)동안 타시도로 유출된 호남인구는 31만9000명으로, 이 중 수도권으로 26만8000명(84%)이, 충청권으로 4만8000명(15%)이 빠져나갔다. 특히 호남권 유출 인구 가운데 10~30대 청년층이 96%인 30만6000명(10대 4만2000명, 20대 24만8000명, 30대 1만6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젊은인구 유출에 대해 열악한 교육환경,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 일자리 부족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젊은인구의 외부유출로 전남·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타지역보다 높은 각각 21%, 17%로,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조만간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호남의 인구 유출을 막는 대책으로 교육과 일자리 여건 개선, 젊은층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등을 제안했으며, 특히 광주와 전남·북이 뭉쳐 500만 인구를 규모화한 뒤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과 규모의 경쟁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호남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전남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성공을 위한 호남권 공동 전략 수립 등을 요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LIRIKOS

마린콜라겐으로 딱 차오르는 피부-
고농축 탄력 앰플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

주름만큼이나 심각한 피부노화의 징조는 바로 탄력저하-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은 농축하고 농축한 입도적 함량의
마린콜라겐이 무너진 피부에 힘있는 탄력을 채워드립니다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채용으로 뷰티저널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문의: (주)리리코스 고객 서비스 센터 080-023-5454 www.lirikos.co.kr www.facebook.com/lirikos.kr